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노동법 개악 추진하기로

휴일 노동 수당 삭감, 노동시간 단축 단계 시행 등...민주노총, 14일 긴급 기자회견 등 투쟁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 개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결정자들은 12월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이 합의한 휴일 노동 수당 삭감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1월 23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안에 합의했다. 이날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주 52시간제 단계 시행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 노동 수당 삭감, 통상임금 200% → 150%)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이다.

12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 노동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에 발맞춰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가 휴일 노동을 하면 회사는 통상임금 50% 연장 노동 수당과 50% 휴일 노동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안이 장시간 노동, 휴일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 법안이자, 임금삭감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산별노조대표자가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추진을 규탄하고 대응 투쟁 계획을 밝힌다.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먼저 대응한다

총연맹·금속·공공법률원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 문 열어...재무상황, 경영상태 등 회계정보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하 법률원)은 12월 11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아래 기업경영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기업 재무상황과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민주노조 활동과 투쟁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기업경영분석실은 자본과 이들의 의뢰로 연명하는 법률 집단의 전유물이던 기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각종 소송과 구조조정, 임단협 등에 먼저 대응하고 민주노조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기업경영분석실은 ▲ 회사 경영분석보고서 작성과 결과 공유를 통한 민주노조 투쟁 지원 ▲ 정리하고 등 회계문제가 쟁점인 민사소송, 회계조작,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 고발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담당 ▲ 회생·파산, 워크아웃,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 대응 자문 ▲ 구조조정, 기업회계 등을 주제로 순회 교육 ▲ 자체연구와 협업을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경영분석실 장석우 변호사는 “정리하고 등 현장에서 문제가 터진 뒤 노조가 경영분석 등을 의뢰하면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업장 정기 분석을 통해 노조가 사측 보다 먼저 대응하면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2018년 상반기에 노조나 개별 사업장이 의뢰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2017년 재무정보 집계가 끝나는 6월부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분석한 사업장을 선별해 기업경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본에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알려고 해도 한계가 많았다. 기업경영분석실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라고 축하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추사에서 “자본은 노동자가 경영정

보에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간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렸다”라고 비판했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속노조가 기업경영분석실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쌍용차 정리하고 이후 2009년에 이런 기업경영분석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며 “정리하고 뒤 김경을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나서줘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기업의 잘못된 회계문제 등이 공개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쌍용자동차, KEC, 한국산연, 한국철도공사, 기아자동차, S&T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정리하고 소송, 파업손해배상 소송, 통상임금 소송 등 회계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맡아왔다.